



2022. 10. 26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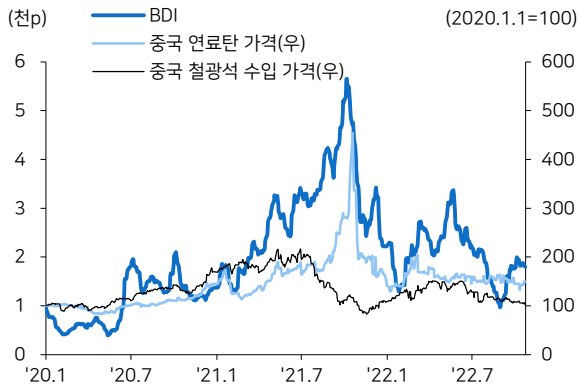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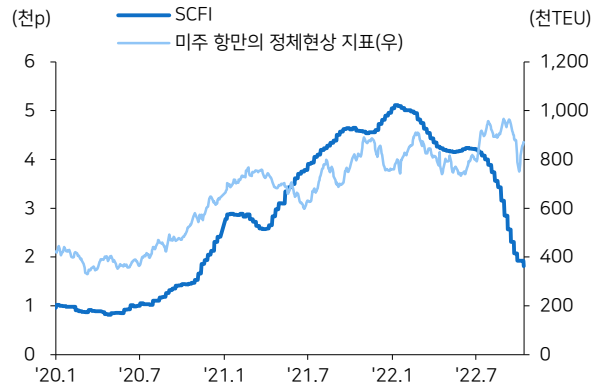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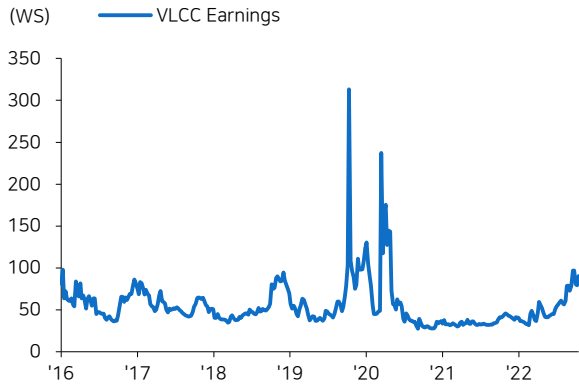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9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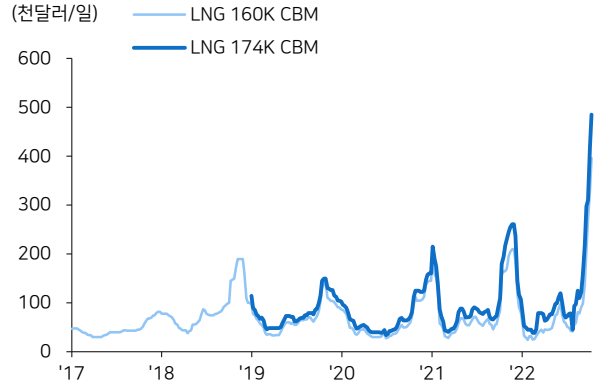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78.7p(-35.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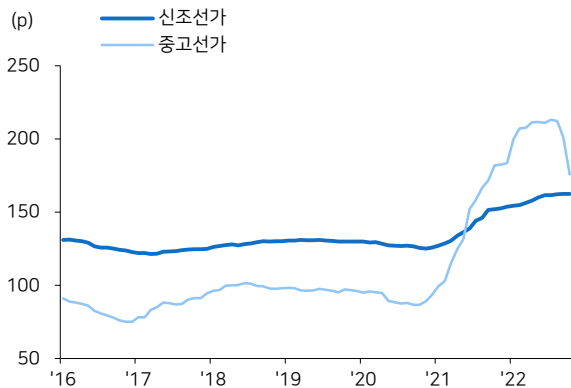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103.8p(+13.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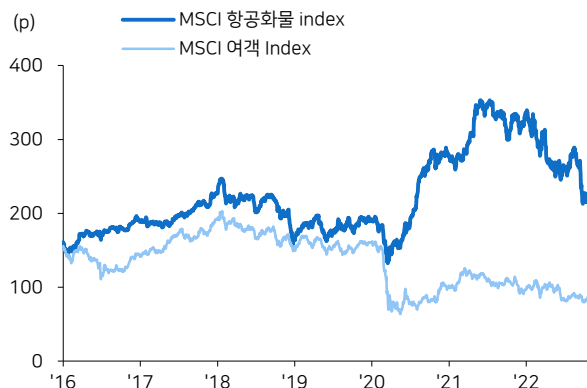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42.5p(+46.3p WoW)
485.0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8p(+0.1p WoW)
174.7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29.0p(+2.9p DoD)
88.2p(+1.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peculation swirls about buyers for DSME's unexpected open LNG carrier slots

대우조선해양의 갑작스러운 2026년 인도될 LNG선 4척 슬롯 오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됨. 일본 Mitsui OSK Lines, Maran Gas Maritime 등 기존 단골고객에게 최소 1개 슬롯을 제안했다고 알려짐. MOL은 관심을 보였지만, Maran Gas는 약 2.5억달러의 높은 선가에 망설이고 있다고 언급됨. 나머지 2척 슬롯은 누가 발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New cheaper, more efficient three-tank LNG carrier concept proposed by GTT

GTT가 신규 LNG운반선 디자인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4개가 아닌 3개의 화물탱크를 갖춰, 1) 더 낮은 자연기화율(BOR)과 2) 건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됨. 현재 일일 BOR 0.085%에서 Mark III Flex membrane 시스템을 갖춘 3개 탱크 디자인은 일일 BOR 0.08%까지 낮출 수 있다고 알려짐. 더 작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Tradewinds)

Jiangnan Shipyard signs \$1bn in preliminary deals for LNG and ethane carriers

중국 Jiangnan Shipyard가 3개의 아시아 선사와의 LNG선 6척 건조 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98,000CBM급 VLEC 4척, 175,000CBM급 LNG선 2척으로 총 선가는 약 10억달러 수준이라고 언급됨. LNG선은 척당 2.3억달러이고, 2027년 7월말 인도예정이라고 언급함. VLEC는 척당 1.35억달러 규모로 2척은 2025년 10월, 2척은 2026년 1월 인도예정임. (Tradewinds)

Russian uncertainty to boost product tanker demand, Fearnleys says

Fearnleys에 따르면 러시아 불확실성이 PC선 수요를 약 8%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중국 정제소 가동률 증가 가능성 및 타이탄 선복량이 탱커 운임에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성명함. 유럽연합은 해상 물동량 수입금지가 시작되는 2월초까지 약 100만배럴/일의 러시아산 정제유를 대체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짐. (Tradewinds)

Indian imports of Russian crude up nearly sixfold on 2021

2022년 9월 기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약 6배 증가했다고 보도됨. 전년동기 330만톤을 수입했는데, 올해 9월 2,000만톤을 수입했다고 알려짐. 인도 원유수입량의 12%에 해당함. 절반이상이 발틱해 Primorsk/Ust Luga에서 신는다고 알려짐. 톤마일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Suezmax와 Aframax에 긍정적이라고 언급됨. Suezmax 단기운임이 VLCC보다 높은 60,000달러/일을 기록한 이유라고 설명함. (Tradewinds)

EU, 가스값 상한제 두고 입장차 '여전'...내달말 또 회동키로

유럽연합 27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가격상한제를 두고 절충안 모색에 나섰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도됨. 유럽 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었음. 11월 24일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할 계획임. 그러나 가격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되어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된다고 알려짐. 2023년 가스 공동구매 방안도 11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합뉴스)